

扶安 大項里貝塚의 檢討

李永德*

I

大項里貝塚은 1967년 당시 서울대학교 고고학과에 재학중이던 崔夢龍 교수에 의해 발견되어 학계에 보고된 유적이다¹⁾. 행정구역상으로는 全北 扶安郡 山內面 大項里 389-1, 390번지에 해당한다. 보고에 따르면 패총이 확인된 지점은 보리밭으로 경작되고 있었으며, 패각층의 일부가 干潮에 의해 노출된 상태였다고 한다. 범위는 남북 약 14m, 동서 약 10m 정도되며, 패각층 두께는 53~65cm이다. 유물은 櫛文土器系 2점의 토기편과 斑岩製 打製石器 5점, 삼국시대로 추정되는 토기편 2점이 수습되었다.

대항리패총은 당시까지 패총유적의 존재가 전무하던 전북지역에서 최초로 조사된 유적이라는 점에서 전라북도 기념물 제50호로 지정된다.

보고에는 패총의 소재지가 蛤九味로 되어있으나 「蛤九味」 혹은 「조개미」 마을은 패총이 확인된 지점에서 북으로 약 1km정도 떨어진 지점이며,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대항리 대항마을에 해당한다. 1998년 8월 이곳을 답사하게 되었는데 유적은 최근에 들어서 관광 위락시설 및 해수욕장 부대시설을 만들면서 크게 훼손된 상태였다. 유적이 입지한 곳은 지금도 밭으로 경작되고 있으나 깊게 객토를 하여 상당부분 패각층이 훼손되었다. 패총은 남북 약 100m, 동서 40m에 걸쳐 분포하고 있었으며, 지표상에서는 패각과 유물이 산재해 있었다.

여기에서는 대항리패총에서 필자가 수습한 토기편 및 석기를 소개하고 대항리패총이 기존에 인식해 왔던 것처럼 신석기시대보다는 청동기시대를 중심연대로 할 가능성에 대해서만 언급하고자 한다.

*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研究所 研究員

1) 崔夢龍, 1967, 「全羅北道 海岸一帶의 先史遺蹟(二)」, 『考古美術』 8-5(通卷 85號), 考古美術同人會.